

창간사

살아있는 교육공동체 평생학습 도래지 사하

만물이 소생하는 3월, 새 출발의 설렘을 안고 사하구 평생학습 소식지 '사하배움마당' 창간호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논어의 첫 구절에 '학이시습지 불역열호(學而時習之 不亦說乎)'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구민들이 소식지에 담긴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논어에서 나오는 배우는 즐거움을 몸소 느낄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더 나아가 살아있는 교육 공동체를 만들어 최고의 평생학습 도시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구는 2013년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면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평생학습을 통한 자아성장과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정보 부족으

로 학습의 기회를 갖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하배움마당'은 구민들의 보편적 정보 접근성을 높여주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개개인에게 주어진 힘들을 최고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또한 최대한 균형 있게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평생교육 환경을 만드는데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구민들이 직접 발로 뛰며 취재한 소식들을 실은 '사하배움마당'은 구민이 원하는 평생교육, 그리고 학습을 통해 성장하는 지역을 만드는 데 주춧돌이 되고자 합니다. 함께 살아 숨 쉬는 신문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사하구청장

축사

사하구 평생학습을 널리 알릴 소식지 창간을 축하합니다

우리구의 다양한 평생학습 정보를 소식지 형식으로 제공하여 우수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평생학습도시의 사하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한 '사하배움마당' 발행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의정활동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 구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메르스 등 어려운 여건과 주변의 많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우리구 의회가, 풀뿌리 지역 민주주의 구현에 기여하고, 지방의회의 민주성을 제고할 수 있었던 것은, 구민 여러분 모두의 따뜻한 사랑과 깊은 관심의 결실이라 생각합니다.

올 한 해도, 언제나 겸허한 자세로써, 눈으로 보고 발로 뛰는 현장중심의 생활밀착형 의정활동으로, 생활정

치 실현은 물론, 구민들로부터 신뢰와 사랑 그리고 칭찬과 박수를 받는, 구민 여러분을 위한, 의회를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구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우리구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참여와 제언도, 함께 보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다시 한 번 사하구 평생학습 소식지 '사하배움마당' 발행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늘 구민과 함께 하면서 사랑과 신뢰를 듬뿍 받는 지역문화의 풍요로운 소식지로 발전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사하구의회 의장

평생학습 현장 주민이 직접 전한다

사하배움마당 3월 20일 창간

사하구는 평생학습신문 '사하배움마당' 창간호를 발행하였다. 많은 기다림 속에 발간한 것이라 구민들의 기대도 크다. 그동안 사하구는 구민의 평생학습에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다. 그러나 아직도 평생학습을 생소해하거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구민들이 많다. 사하배움마당은 평생학습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구민의 직접적인 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창간되었다. 3월 창간호를 시작으로 분기별(3, 6, 9, 12월) 4회 발간할 예정이다.

사하구는 신문 발행을 준비하며 지난해 연말 구민기자를 모집해 기자교실을 열었다. 구민기자로서 자세와 취재방법을 배운 기자들은 직접 기사를 써 12월 31일 창간 준비호를 내기도 하였다. 지난 1, 2월에도 기자교실이 이어져 아이템 발굴과 기사 작성법, 기획회의 방법, 편집, 신문사 견학 등 현장 경험을 쌓았다. 교육을 수료한 구민기자단 19명은 2월



26일 발대식을 열고 공식 활동에 나섰다. 구민기자들은 이구동성으로 평생학습 신문 창간을 기뻐하며 "구민들과 공유하는 평생학습

을 만들기 위해 애쓸 것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하배움마당'은 구민기자가 직접 현장에

서 취재하고 보도함으로써 주민소통을 강화하고 시민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구민이 만드는 소식지라는 의미를 살려 소식지 이름도 구민들을 대상으로 한 공모를 통해 선정되었다. 앞으로 구민의 시선으로 우수사례를 소개하여 평생학습도시 사하를 만들어 가는 데도 주도적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하구 평생학습 정보로 채워질 '사하배움마당'은 사하구청, 평생학습관, 동별 주민센터, 작은 도서관 등에서 만날 수 있다. 기사제보는 평생학습관 ☎051) 220-4117~8 또는 메일 eduleader@korea.kr로 받는다.

이경녀 · 이미성 평생학습 구민기자

leekn61@hanmail.net
merrygold2971@hanmail.net

.. 인기강좌 현장스케치 ..

행복을 주는 손 마사지

평생학습프로그램으로 몸과 마음도 치유

“아, 아파요!” “아이 시원해!”
여기저기서 아프다고 엄살을 떠는 소리, 시원하다고 즐거운 비명을 지르는 소리들이 왁자지껄하다. 50명의 수강생들이 하나라도 더 배우고 익히려고 추운 겨울인데도 짧은 소매 옷을 입고 땀을 흘리며 손을 부지런히 움직인다. 배우고 가르치는 이들의 열기로 가득한 이곳은 ‘경혈지압과 손 마사지’ 수업이 열리는 사하구평생학습관 제1강의실이다.

김용서 강사는 “우리 몸은 살아 있는 동안 혈액이 온몸을 쉼 없이 순환하는 것과 같이 기(氣)도 끊임없이 순환이 잘 되어야 하는데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원인(운동부족, 스트레스 등)에 의해 기의 순환이 순조롭지 못하게 되면 건강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고 하셨다. 이런 지적은 현대인이란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이야기다. 그래서인지 손 마사지 수업은 인기 절정이다. 수업은 지난 2월, 주 2회 이루어졌다.



▲ 마사지 실습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수강생들

경혈지압은 기의 순환을 보다 순조롭게 흐르도록 도와주어 면역력과 활동성, 아름다움, 성장에 도움을 주는 효과가 있다. 실질적으로 경락의 흐름은 팔과 다리, 손과 발에 다 연결되어 있고 손과 발의 움직임은 기의 순환을 강하게 자극하는 효과가 있으며, 발이 인체의 축소판이듯 손도 마찬가지다. 두 곳이 우리 몸의 뿌리라고 보면 된다. 뿌리가 튼튼하면 생명력은 강하게 된다. 인간은 동물에 속한다. 동물은 살아 있는 동안 끊임없이 움직이는 속성을 갖고 있어 팔다리의 움직임은 살아 가고 있음, 계속 살려고 함을 우리 뇌에 전달하고 뇌는 살아갈 수 있게 자율신경을 가동시켜 신진대사가 원활히 되도록 한다.

고령화 시대를 맞은 요즘 무엇보다 건강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늘고 있다. 물질 만능, 개인주의로 세상은 더욱 각박해지고 있다. 이런 시기에 건강도 챙기며 인간관계도 원만하게 해주는 손 마사지는 인기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하숙자 평생학습 구민기자
ssaksil@hanmail.net

유명 대학 강의 무료 수강

한국형 무크(K-MOOC)온라인 강좌 개설

MOOC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MOOC란 수강자 수의 제한이 없는 대규모 강의(Massive)로, 별도의 강의료 없이(Open) 인터넷(Online)으로 제공되는 교육 과정(Course)을 뜻한다. 2012년 미국에서 시작된 MOOC는 웹을 통해 세계적 석학들의 강의를 무료로 접하고, 양방향 학습을 할 수 있다는 매력으로 영국, 프랑스, 독일, 중국 등으로 확산됐다. 2015년 우리나라도 세계 흐름에 발맞춰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 시범 운영에 첫 발을 디딘 화제가 되었다. 한국형 무크(K-MOOC)는 지난해 서울대, KAIST를 비롯해 국내 10개 대학 총 27개 강의를 시작했고

2018년까지 총 500개 이상의 강좌 운영을 목표로 매년 강좌 수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강좌는 각 대학이 직접 운영한다. 수강생은 강좌별로 교수가 정한 일정한 기준(퀴즈, 과제, 평가점수)을 통과하면 대학 명의의 이수증을 발급 받을 수 있다.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kmooc.kr> 접속하면 된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정수형 선임전교원은 “평생교육분야에 대한 한국형 무크(K-MOOC)를 자기계발 기회로 활용하면 좋겠다”라며 참여를 권했다.

임미정, 김근호 평생학습 구민기자
immejkr@naver.com, armbong@naver.com

2016년도 K-MOOC 강좌 개강 일정

대학명	과목명	교수명	개강일	종강일
경희대	호모 폴리틱스 : 우리가만든세계	유정완	4. 4	7.30
	세계시민교육, 지구공동체로서의 시민으로 살기	김현	4. 4	7. 3
고려대	민법학입문	명순구	3. 7	6.12
	고전문헌과 역사문화	심경호	3. 7	5.15
부산대	사회적기업 아름다운 경영이야기	조영복	3. 2	7.12
서울대	경제학 들어가기	이준구	3. 2	7.12
	우주와 생명	김희준	3. 2	7.12
성균관대	논어	신정근	3. 2	6.19
	창의적 발상	박영택	3. 2	6.19
연세대	문학이란 무엇인가	정명교	7. 1	10.31
	서비스디자인	김진우	9. 1	12.31
	경제학 첫걸음 part1 : 미시경제학	정갑영	4. 1	-
	경제학 첫걸음 part2 : 거시경제학	정갑영	9. 1	-
이화여대	영화 스토리텔링의 이해	류철균	3. 2	6.17
	인간행위와 사회구조	함인희	3. 2	6.17
	건축으로 읽는 사회문화사	임석재	3. 2	6.17
한국과학기술원	인공지능과 기계학습	김기응 오혜연	10. 3	12.25
한양대	건축공간론	서현	4. 4	5.29
	정보사회학입문	윤영민	4. 4	5.29

※ 강좌운영계획은 참여대학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내 생애 첫 책’ 인생 최고의 선물

책보따리 1천 200개 영유아에게 풀다



▲ 아이들과 책 속 이야기로 게임 즐기기

사하구가 부산시에서 유일하게 ‘내 생애 첫 책’ 지원을 받았다. 국민들에게 책 읽는 즐거움을 길러 주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주최하고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과 국민독서문화진흥회가 주관하는 이번 사업은 주민 등본과 아기수첩을 증빙하면 선착순으로 2권씩 배부하는 맞춤형 책 지원 사업이다.

사하구는 책 보따리 1천200개를 지원받아 영유아 (6개월부터 36개월까지)가 있는

가정에 책을 지급했다. 첫 책 사업은 아이가 처음 만나는 책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인생 최고의 선물이 될 수 있다는 의미가 크다. 자원봉사활동 교육을 받은 봉사자들이 단계별로 선정된 책을 가지고 ‘도서관이 좋아요’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지난 1월 당리동 종달새어린이집에서 부모와 영유아가 함께 참석한 가운데 4회 진행되었다. 책 읽어주기, 책 내용과 관련된 놀이와 동화구연으로 부

모와 아이들의 관심을 높였다. 참석했던 김소연씨는 “읽는 즐거움으로 끝나지 않고 책과 연계한 확장놀이로 이어지다보니 아기도 엄마도 알찬 시간이었다”며 “이런 기회가 자주 생겼으면 하고, 우리 아기도 좋은 어른으로 성장했으면 합니다.” 라고 말했다.

손현아 평생학습 구민기자
ssnyen@hanmail.net

아름다운 그대

망설이지 말고 평생학습강좌를 들어라

시 낭송 한 편을 1년 동안 연습하는 노력파 이숙희 씨

하단동 주민인 이숙희(61세) 씨는 2013년 사하구 평생학습관과 인연을 맺었다. 당시 남편의 사업 실패 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던 중이라 심신이 힘든 상황이었다. 그때 사하구 신문을 읽던 중 '동화 구연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을 보고 학습관에 첫 발을 디뎠다. 이숙희 씨는 예전에 동화 구연에 관심이 있었던 기억을 떠올리며 열심히 배웠다. 그녀는 돈도 벌면서 생활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겠다는 기대감으로 평생학습관으로 향하는 내내 신바람이 났다고 했다. 동화 구연 강좌 수강 중 시 낭송도 알게 되었다. 시 낭송에 재능이 있다는 강사의 피드백으로, 지속적인 배움으로 역량 강화를 하고 있다. 2016년 상반기에는 사하 문화원 '시 낭송' 강좌를 맡았다. 이숙희 씨는 꿈을 하나하나 이루고 있다며 자부심이 대단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떠나질 않았다.

그녀는 동화 구연과 시 낭송 외에도 학습관에서 책놀이 지도사, 레크리에이션 강사,

실버 놀이 지도사, 심리·가족·진로 상담사 등 여러 자격증을 취득하였다. 현재 청림 요양병원, 글로벌 사회서비스센터 유치부, 을숙도 에코센터 도서관에서 동화 구연, 시 낭송 등 재능 나눔 봉사를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강사로도 맹활약 중이다.

남은 인생 동안 배움과 나눔을 실천할 것이고, 앞으로 건강과 노인 관련 공부를 더 하고 싶다는 그녀에게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다시 한 번 배움의 기쁨을 느끼게 해준 평생학습관에 감사 인사도 잊지 않았다. 또한 아직 평생학습과 인연이 닿지 않은 사하구민들에게 마음으로 당부의 말도 전했다.

"망설이지 말고 시간을 만들어서라도 우선 순위로 강좌를 들으세요! 자기 계발도 되고, 강사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도 얻을 수 있습니다."

고명옥 평생학습 구민기자
arm5013s@naver.com



이 코너 주인공을 기다립니다.

이 코너는 평생학습을 통해 키운 재능을 지역사회에 나누는 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을 소개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의 추천을 기다립니다.

사하구 평생학습관 (eduleader@korea.kr)

배우고 나누는 따뜻한 이야기

학습 나누고, 행복 곱하고 봉사하며 이웃 사랑법을 배우고 와요



▲ 힘든 봉사 후 더 활짝 웃는 동아리 회원들

지난해 하반기 감천1동 행복센터에서 열린 정리수납 자격증 과정을 수료한 수강생 7명이 학습 동아리를 구성했다. 배운 것을 이웃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뜻을 같이한 것이다.

동아리 '척척! 정리수납'은 주민센터 복지로부터 추천을 받아 감천동에 사시는 박모(81) 할머니 댁을 방문했다. 박 할머니는 오랫동안 혼자 사셨다고 한다. 먼저 회원들은 집안 청소와 정리정돈을 했다. 정리수납이 목적이었으나 집안 청소가 더 시급했기 때문이다. 2명씩 조를 이루어 한 조는 싱크대 청소와 화장실 청소를 하고 다른 한 조는 냉장고 정리정돈을 했다. 추운 날씨 탓에 따뜻한 물이 나오지 않아 손이 시리고 무척이나 힘들었지만 수세미로 찌든 때를 벗겨냈다. 냉장고에 부패된 음식은 버리고 정리했다. 화장실 청소는 더 힘들었다. 악조건 속에서도 깨끗하게 정리된 집을 보고 박 할머니는 추운 날씨에 너무

고생을 한 것 같으며 미안하고 고맙다는 인사를 연거푸 하셨다. '척척! 정리수납' 회원들은 깨끗해진 집을 보고 기분까지 상쾌해졌다. 뿐만 아니라 수업에서 배운 것을 바로 실천할 수 있어 좋았고 작은 일이 커다란 행복을 줄 수 있다는 것에 보람을 느꼈다고 말했다.

'척척! 정리수납'은 매월 둘째 주 월요일 독거노인을 찾아가 정리정돈 봉사를 하며 이웃사랑을 실천할 계획이다. 정리수납에 그치지 않고 어르신들의 말벗도 되어드리고 간식 거리도 챙겨드릴 생각도 가지고 있다. 이들의 첫 출발이 힘들고 어려웠으나 재능 나눔은 계속될 것이며 결국 사하구를 보다 따뜻한 공동체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척척! 정리수납 파이팅!

안옥순 평생학습 구민기자
an5035@hanmail.net

우리지역 평생학습기관을 소개합니다.

우리 가족 든든한 후원자

사하구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이용하세요

'가화만사성(家和萬事成)'이라 집안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잘 된다는 말이다. 우리구에서도 화목한 가정을 지지하고 지원하는 기관이 있다. 바로 평생학습관과 나란히 위치해있는 '사하구 건강가정지원센터'이다.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가족 내 다양한 갈등과 문제를 예방하고 건강한 가정을 위해 교육사업과 상담 등을 실시하는 기관이다. 여러 사업 중 매월 진행되는 '가족사랑의 날'과 '부자유친' 프로그램은 인기가 많다고 한다. 특히 가족단위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많아 다른 평생학습기관과 차별화된다.

'가족사랑의 날' 프로그램은 대개 매월 셋째 주 수요일 저녁에 이루어지는데 이는 아빠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어 협동을 통한 가족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진행이 된다고 한다. 주로 만들고 오리고 붙이는 공예 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지루하지 않고 재미있게 참여 할 수 있다.

또한 '부자유친' 프로그램은 평소 아이들과 지낼 시간이 많지 않은 아빠와 자녀만 참여할 수 있는 특화된 수업이라 하겠다. 이 또한 매월 둘째 주 토요일에 진행이 된다. 가족문화사업 외에도 사하구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하는 일이 많다. 가족상담사업, 가족교육사업, 가족돌봄나눔사업, 공동육아나눔터사업, 취약·위기가족지원사업, 아이돌봄지원사업 등 온통 가족과 관련된 일들을 다 맡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역주민 누구나 홈페이지 (http://saha.familynet.or.kr) 또는 전화 (051-203-4588)로 상담과 교육프로그램 신청을 할 수 있다. 사하구민들 모두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립 목적과 같이 건강한 가족 나아가 행복한 지역사회가 되길 바란다.

김정숙 평생학습 구민기자
kjs5328@hanmail.net



열린 학습의 장 사하구 평생학습관

지역 주민들을 사로잡는 프로그램 운영

사하구 평생학습관 홈페이지 (<http://lll.saha.go.kr>)



오늘날은 지식량이 급속히 증가하고 무한한 변화의 연속이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현대사회에서 도태되지 않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새로운 지식들을 끊임없이 습득하여야 한다. 글로벌 지식기반 사회에 평생교육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

‘평생학습도시’라는 말을 들어 보았는가?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원하는 학습을 배우고 즐길 수 있는 학습사회를 만들어 도시 전체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도시와 주민이 함께 성장하고 발전하는 도시를 말한다. 교육부는 2001년도부터 평생학습도시를 지정해오고 있는데, 사하구는 2013년 7월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었다. 전국적인 현황으로 볼 때 비록 빠른 출발은 아니지만, 지역 맞춤형 평생교육에 대한 깊은 고민과 노력으로 2013, 2014년 연속 구·군 평생교육 운영 평가 ‘최우수’, 2015년 ‘우수’ 등급을 받으며 평생교육을 선도하는

분위기에 발맞춰 다양한 직업능력교육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으며 각종 자격증과정을 개설하여 경력단절여성과 은퇴자들의 새로운 직업 준비를 돕고 있다. 프로그램을 통해 교육만 시키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배움 내용을 지역사회에 나누고 직업인으로 발을 디딜 수 있도록 돕는 연계사업도 운영하고 있다. 수료생들을 경로당 강사로 파견하는 ‘행복학습 경로당’ 사업, 지역아동센터 등의 시설을 찾아가 소외계층 아동을 돌보아 주고 교육하는 ‘찾아가는 학습멘토’ 사업 등이 그것이다.

또한 사하의 지역특성을 반영한 사하자연학교, 기업으로 찾아가는 평생학습, 배움에 대한 열정과 관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제약으로 학습관 이용이 힘든 구민들에게 직접 찾아가 강의를 제공하는 배달강좌 등 다양한 특화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평생학습도시로 인정받고 있다.

사하구는 ‘풍요롭고 살기 좋은 창조도시 사하’의 비전 아래 2012년 4월, 하단 초등학교 맞은편에 평생학습관을 개관하였다. 사하구민에게 도움이 되는 직업능력, 인문교양, 시민참여 교육 등 다양한 영역의 프로그램을 연간 50개 이상 진행해오고 있다. 과거에는 학습자들이 단순 취미·교양차원의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요구했다면, 지금은 실생활에서 활용이 가능한 학습, 제2의 직업을 모색하기 위한 평생학습 요구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직장인 참여를 위한 야간프로그램, 주말과 방학을 활용한 가족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고 구민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참신하고 흥미로운 평생학습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한다. 평생학습관은 ‘사하구민 누구나 소외됨 없이 원하는 시간, 원하는 장소에서 학습의 기회를 누릴 수 있는 열린 학습의 장’으로 ‘학습정보 교류 및 배움과 나눔의 소통 창구’가 될 것이며, 사하구민과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하구 평생학습관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평생학습관 홈페이지를 방문하거나 SNS를 통해서도 평생학습 관련 사업과 교육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으니 관심있는 구민들은 네이버 밴드나 페이스북에서 ‘사하구 평생학습관’을 검색해 보기 바란다.

문의 : 051-220-4117~8

김현진 평생학습 구민기자
tlatla20@hanmail.net



○ 사하구 평생학습관 오시는 길 ○
1호선 하단역 4번 출구, 하단로 방면 200m, 도보4분
주소 : 사하구 하산중앙로 324 2층(하단동)

동아리 특 특 자연에서 즐기며 공부해요 평생학습동아리 날도래 강도래

‘날도래강도래’는 사하구 평생학습관에서 ‘이야기교우니’ 기초·심화과정을 수료한 수강생들이 만든 평생학습동아리다. 2012년 1기를 시작으로 2015년엔 회원을 정비하여 현재 회원 18명이 활동하고 있다. 깨끗한 물에 사는 수서곤충 강도래, 날도래처럼 도심자연 생태의 소중함을 생각하자는 의미로 ‘날도래강도래’라는 동아리 이름을 지었다고 한다. 사하구 일대 생태체험활동과 환경교육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학습하는 동아리이다. ‘날도래강도래’ 회원들은 타 지역과 다른 사하구의 생태 환경을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연구한다. 현재 봄, 가을에

운영 중인 ‘물운대, 승학산 자연학교’의 생태교우니 강사로 활동하거나 청소년 자원봉사를 통해 숲 생태 설명과 환경정화 활동을 하고 있다. 기관, 초등학교 방과후, 아파트 주민 등의 생태수업을 진행하며 개인의 역량강화를 위해 다양한 수업을 듣기도 한다. 숲밭줄지도사, 지질해설사로 활동 중인 회원들도 있다.

지난달 19일, 다소 추운 날씨에도 회원들이 우리 고장을 찾는 겨울 철새를 관찰하기 위해 을숙도 에코센터에 모였다. 도감과 탐조도구를 가지고 초빙 강사님의 설명을 듣고 관찰했다. 고니, 오리, 특성을 찾기 위해 집

중하는 모습이 여느 수험생 못지않았다.

앞으로는 지금하고 있는 물운대, 승학산 자연학교 이외에 아미산의 생태수업을 개발할 예정이다. 우리 고장의 자연을 아끼고 사랑하는 ‘날도래강도래’가 더욱 열심히 연구하고 실천하여 지역민들에게 꼭 필요한 강사가 되었으면 한다. 아울러 청소년 자원봉사수업, 어르신 수업을 늘려 명실상부한 지역 대표 생태체험 동아리로서 거듭나길 기대해본다.

김민정·김수현 평생학습 구민기자
cute0114@hanmail.net · 16mmstory@naver.com



▲ 가족과 함께하는 자연학교 탐방



▲ 역량강화를 위한 강사 초빙 수업